

<b>8. 結婚式の引出物</b>		
(友人の結婚式に参加した帰り道で)		
ミ	としこのドレス姿、きれいだったね～。	도시코의 드레스 모습, 예뻐어~
ゆ	うん、ドレスもきれいだったけど、着物もすてきだった。	응, 드레스도 예뻐는데, 기모노도 예뻐어.
ま	そうね～。私はご両親への手紙を読むとき、もらい泣きしちゃった。	응~. 나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 같이 울어 버렸어.
ミ	まなみて涙もろいよね。すぐ泣くんだから。それはそうと、このプレゼントは何？逆に私たちがもらっていいの。	마나미는 눈물 많네. 금방 운다니까. 그건 그렇고, 이 선물은 뭐야? 반대로 우리가 받아도 돼?
ゆ	あ～これは引出物って言って、参加してくれた人にお礼の意味でプレゼントを渡すの。	아~ 이건 답례품이라고 해서, 참가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전달하는 거야.
ま	そうそう。あ、カタログギフトの本が入ってる。最近はこのが多いよね。	응 맞아. 아, 카탈로그ギフト 책이 들어 있어. 요즘에는 이게 많은 것 같아.
	本の中から好きなのを自分で選べるからいいよね。	책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ミ	ねえねえ、ちょっと腹黒い話だけど、今までもらった引出物の中で微妙だったのがある？	저기, 좀 엉큼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별로였던 게 있어?
ゆ	二人の名前入りの食器をもらったことがあった。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식기를 받아 본 적이 있었어.
ミ	うわ～それは困る！でも引出物を選ぶ方(ほう)も大変そうね。	와~ 그건 곤란하지! 하지만 답례품을 고르는 쪽도 힘들 것 같네.
ま	そうそう。引出物の中身もそうだけど、結婚式の準備が大変で、けんかしちゃうカップルも多いらしいよ。	응 맞아. 답례품의 내용물도 그렇지만, 결혼식 준비가 힘들어서 싸우는 커플도 많대.
ミ	ひゃ～。私はさっさと韓国でしておいてよかった～。	하~, 난 빨리 한국에서 해 두길 잘했네~
	って	라고, 란
	素敵	すてき 대단히. 근사한
	引出物	(ひきでもの) (결혼식, 축하연 등의)답례품
	もらい泣き	(もらいなき) 다른사람이 우는데 따라서 울
	もろい	脆い 여러다, 약하다, 무르다 (예) 涙(なみだ)もろい 눈물을 잘 흘리다
	それはそう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화제를 돌릴 때 사용함] 「ときに」, 「ところで」, 「話は変わって」
	腹黒い	(はらぐろい) 엉큼하다, 속이 검다, 「わるがしこい(悪賢い)」, 「ずるがしこい」, 「こざかしい」
	腹が立つ	화가나다
	腹を立てる	화를내다
	腹が大きい	도량이 크다
	腹を割(わる)	본심을 털어놓다
	腹を決める	마음을 정하다
	腹を抱(かか)える	배꼽을 움켜쥐다
	微妙だ	(びみょうだ) 미묘하다
	食器	(しょっき) 식기

中身	(なかみ)	내용물, 알맹이
さっさと		(동작이) 재빠름, (서둘러하는 모양을 나타내어) 후딱후딱, 빨랑빨랑, 척척
あげる		주다, 나(or 내 가족) → 제3자, 제3자 → 제3자
くれる		주다, 제3자 → 나(or 내 가족)
もらう		받다.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문장의 술어가 되며 인칭의 제약이 없다.
いそがしそうだ		바쁜 것 같다, イ・ナ형용사 어간 + そうだ
べんりそうだ		편리할 것 같다, 편리해 보인다
よさそうだ		좋을 것 같다
なさそうだ		없을 것 같다
<b>9. 日本の就活</b>		
(ミレが事務所で先輩の中山と話す)		
中 ねえねえ、さっきロビーでリクルートスーツの学生たちを見かけたんだけど、今日うちの会社で面接あるの？		있잖아, 아까 로비에서 정장 입은 학생들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 회사에서 면접있어?
ミ あ、そうでしたね。なんだか自分の時のこと思い出しませんか。		아, 그랬죠. 웬지 본인 면접 때 생각나지 않아요?
中 ん~私は15年前のことだから、遠い昔の話であんまり覚えてないわ。ミレさんはどうだったの。		음~ 나는 15년 전의 일이라서, 먼 옛날 이야기라 별로 기억나지 않아. 미래 씨는 어땠어?
ミ 私は初めて日本で就職活動したとき、まず就活生たちの服装が不思議でした。みんな同じ黒いスーツに黒い髪ですよね。		저는 처음 일본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취업 준비생들의 복장이 우선 신기했어요. 다 똑같은 검은 정장에 검은 머리잖아요.
日本って個性を大事にする国だと思ってたのに、就活ではけっこう固いですよね。		일본은 개성을 소중히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구직 활동에서는 꽤 딱딱하네요.
中 そうね、新卒の学生たちはみんな同じ格好してるもんね。		그렇네, 졸업 예정자들은 모두 같은 차림이긴 하지.
ミ はい。夏でも男性は長袖のジャケットを着る、女性もストッキングを履くという決まりは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네, 여름에도 남자들은 긴팔 재킷을 입고, 여자들은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中 そうね、夏にストッキングって海外では理解できないよね。私たちは正式な場で素足は失礼だからね。もっと自由にしたいわ~。		그렇네, 여름에 스타킹이라니 해외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 우리는 정식 석상에서 맨발은 실례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
ミ ですよ。ま、とにかく今日の面接でいい人が入ってきたらいいですね。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면접에서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就活	(しゅうかつ)	취직활동의 준말
リクルートスーツ		취직활동용 정장
見かける	(みかける)	눈에 띄다, (인듯)보다
なんだか		웬지, 왜 그런지, 어쩐지
思い出す	(おもいだす)	생각나다, 생각해 내다
就職活動	(しゅうしょくかつどう)	취직활동

服装	(ふくそう)	복장
不思議だ	(ふしぎだ)	이상함, 희한함, 불가사의
大事にする	(だいじ)	아끼다. 소중히 생각하다(=大切にする). 중요하게 생각하다
格好	(かっこう)	모습, 모양, 꼴
もん		인 걸요, 이거든
長袖	(ながそで)	긴소매, 소매가 긴 옷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履く	(はく)	(양말, 신발 등을)신다
決まり		규칙
素足	(すあし)	(양말을 신지 않은, 피부가 보이는) 맨발
裸足	(はだし)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なんだか		왠지, 왜 그런지,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どういわけか」, 「なぜか」, 「なんか」(회화체)
なんとなく		무심결에, {なんだか(×, 동작 동사와 사용×) / なんとなく(○)}窓の外を見ると、雨が降り始めていた。
結構	(けっこう)	1. 그런대로 제법, 꽤, 상당히,けっこうおもしろうい。 꽤 재미있다. 結構いいものを持っている。 상당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2. 부족함이 없이, 더할 나위 없음, 훌륭함. 結構な景色 훌륭한 경치, 結構なご家庭ですね。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군요. 3. 만족함, 그걸로 충분함. 時間はいつでもけっこうです。 시간은 언제나 괜찮습니다。連絡はメールでけっこうです。 연락은 메일로 충분합니다. 4. (정중하게 사양하는뜻으로) 괜찮음, 이제 됐음もうけっこうです。 괜찮습니다。/이제 충분합니다
たら		~(하)면(조건). 値段が高かったら、一回読んだら、雨が降ったら、午後になったら、この仕事が終わったら、休みたい。家に帰ったら、必ず電話してください。会議が終わったら、食事をしに行きましょう。
<b>10. コンビニで</b>		
(ミレが近所のコンビニで知り合いに会う)		
店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 오세요
田	あれ？ミレさんじゃないですか。	어? 미래 씨 아니에요?
ミ	<b>わっやだ～！田中さん！まさかこんなところで会うなんて。すっぴんで失礼します。</b>	어머나! 다나카 씨! 설마 이런데서 만나다니. 민낯으로 실례하겠습니다.
田	いやいや、全然気づかなかったですよ。お住まい、この近くなんですか。	아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는 곳이 이 근처예요?
ミ	はい、最近この近所に引っ越してきたんですよ。田中さんもお近所さんだったんですね。	네,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 왔거든요. 다나카 씨도 이웃이셨군요.
田	そうなんです。あ、それ！季節限定スイーツですよ。ぼくもそれねらってきたんですよ。	맞아요. 아, 그거! 계절 한정 스위트네요. 저도 그거 노리고 왔거든요.
ミ	あ、田中さんもコンビニスイーツ通ですか。意外ですね。	아, 다나카 씨도 편의점 스위트를 잘 아세요? 뜻밖이군요.
田	はい、限定ものに弱くて、新商品が出るとつい買っちゃうんです。ミレさんはそれ、夕飯ですか。	네, 한정품에 약해서, 신상품이 나오면 무심코 사 버립니다. 미래 씨는 그게 저녁식사예요?

ミ	あ、はい。恥ずかしいんですが、最近コンビニで <b>済ませちゃう</b> ことが多くて、家族にはいつも悪いと思っています。		아, 네. 창피합니다만, 요즘 편의점에서 때워 버리는 일이 많아서, 가족에게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田	わかります、ぼくも、一人暮らしなんで、料理しないでコンビニ <b>弁当ばかり</b> です。		알아요, 저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리하지 않고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있어요.
ミ	そうなりますよね。それに、コンビニって <b>用</b> がなくても <b>つい足を運んで</b> しまいますよね。		그렇게 되죠? 게다가 편의점에는 용무가 없어도 무심코 발길을 옮겨 버리게 되잖아요.
田	ぼくは雑誌の <b>立ち読み</b> で、 <b>すっかり常連客</b> ですよ。これからはコンビニで <b>ご近所付き合い</b> ができますね。		저는 잡지를 자주 서서 읽어서 완전 단골손님이에요.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이웃끼리 어울릴 수 있겠네요.
ミ	そうですね。でも次からは <b>ちゃんと化粧してこなくちゃ</b> 。あはは。		그렇겠네요. 하지만 다음부터 제대로 화장을 하고 와야겠어요. 아하하.
	<b>なんて</b>		라고는, 라는, 이라니, 따위, 하다니
	<b>近所</b>	(きんじょ)	근처, 이웃
	<b>まさか</b>		설마
	<b>すっぴん</b>	素っぴん	화장을 하지 않음, 또는 그 얼굴
	<b>気づかなかった</b>		눈치채지 못했다
	<b>気付く</b>	きづく	깨닫다, 눈치채다
	<b>季節限定</b>	(きせつげんてい)	계절 한정
	<b>新商品</b>	(しんしょうひん)	신상품
	<b>つい</b>		무심코, 그만、甘いものを見るとつい食べてしまうんです。
	<b>ちゃう</b>		~해 버리다(~てしまう)
	<b>買っちゃうん</b>		사버리다
	<b>済ませちゃう</b>		끝내 버리다
	<b>一人暮らし</b>	(ひとりぐらし)	독신생활, 혼자 생활함
	<b>運ぶ</b>	(はこぶ)	나르다, 옮기다, 운반하다
	<b>常連客</b>	(じょうれんきゃく)	(홍행장, 음식점등의)단골손님 [‘常連’이라고도함] cf. おとくいさん
	<b>付き合い</b>	(つきあい)	교제, 사귀
	<b>化粧する</b>	(けしょうする)	화장하다
	<b>なんて</b>		1) ~이라니, ~하다니, ~まさかこんなところで会うなんて!、そんなことで怒るなんて子供みたい。あの人が先生だなんてうそだろう。2) ~따위, ~같은것(회화체표현)=など人生なんてそんなものだ!昔のことなんて、すっかり忘れまして。人生に奇跡なんて存在しない。
	<b>ご近所さん</b>		집에서 걸어서 2~3분정도에 사는 사람
	<b>お隣さん</b>		자신의 집 오른쪽, 왼쪽 집에 사는 사람
	<b>お向いさん</b>		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
	<b>隣近所</b>	となりきんじょ	ご近所さん과 お隣さんを 합쳐
	<b>～通</b>	(つう)	～통. (명사에 접속하여)그 방면에 정통함. 外交通 ワイン通 ラーメン通 肉通 映画通

	すっかり		완전히 모두 다=まったく, 完全(かんぜん)に; '완전히 어떤 상태가 됨'; '남김없이, 죄다' 등의 의미를 나타냄. 町の風景がすっかり変わってしまった。風邪はすっかり治りました。
	意外	いがい	이외
	こなくちゃ		와야지
	<b>11. 直島プロジェクト</b>		
	(ミレと会社の後輩の晴美が直島に取材にきた)		
ミ	これが有名な赤かぼちゃか。		이게 유명한 붉은 호박이구나.
晴	草間彌生(くさまやよい)の作品ですよね。彼女は「太陽の真っ赤な光が直島の海の中でこの赤カボチャになってしまった」と説明したそうです。		구사마야요이의 작품이에요. 그녀는 '태양의 새빨간 빛이 나오시마의 바닷속에서 이 붉은 호박이 되어 버렸다'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ミ	晴美ちゃん、よく知ってるね。		하루미 잘 아네.
晴	この日のためにちゃんと調べました。		이 날을 위해 제대로 조사했어요.
ミ	さすが晴美ちゃん、頼りになる～！		역시 하루미, 믿음직스러워!
晴	えへへ。じゃ、さっそく行きましょうか。		에헤헤. 자, 그럼 바로 갈까요?
	(地中美術館の前で)		
晴	この美術館は安藤忠雄(あんどうただお)が設計したんですよ。名前のとおり、地中に埋まってるんです。		이 미술관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어요. 이름 그대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ミ	へえ～、めずらしいね。じゃ、中は真っ暗になってるの。		와~, 신기하네. 그럼, 안은 완전 어둡나?
晴	自然光が入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て、24時間、また四季によって作品の表情が変わるんです。		자연광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24시간,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작품의 표정이 바뀌어요.
ミ	一日中ここに座って、ただぼうっと見ていたいな。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그냥 멍하니 보고만 싶네.
晴	だめですよ、先輩！今日はこの後リー・ウーファン美術館にも行くんですから。急ぎましょう。		안돼요, 선배! 오늘은 잠시 후에 이우환 미술관에도 갈 거예요. 서두릅시다.
ミ	え～ハードすぎる！晴美ちゃん、もっとのんびり行かない？		에이~ 너무 힘들어! 하루미, 좀 더 느긋하게 가지 않을래?
晴	先輩、今回は取材で来ましたから！さ、重い腰をあげて、最後に直島銭湯のアイラブ湯に行くというごほうびもありますから。		선배, 이번에는 취재차 왔으니까요! 자, 힘들겠지만 일어나세요. 마지막에 나오시마 목욕탕 아이러브유에 가는 포상도 있으니까요.
ミ	え！銭湯！？晴美ちゃん、早く行くわよ！ほら、早く！		어! 목욕탕!? 하루미, 빨리 가자! 자, 빨리!
	<b>かぼちゃ</b>	南瓜	호박
	<b>取材</b>	(しゅざい)	취재
	<b>ちゃんと</b>		꼼꼼히, 틀림없이, 착실하게 ちゃんと準備しよう。ちゃんと窓を開けてください。
	<b>頼りになる</b>	(たよりになる)	의지가되다
	<b>さっそく</b>		즉시, 당장 すぐに。すぐさま さっそくですが、仕事の話にしましょう。さっそく作ってみました。
	<b>設計する</b>	(せっけいする)	설계하다

埋まる	(うまる)	묻히다, 파묻히다, 가득차다
作品	(さくひん)	작품
表情	(ひょうじょう)	표정
ただ		단지, 그냥, 무료, 헛 됨
ぼうっと		멍하게, 희미하게 ぼうっとして大事なことを忘れた。今日は一日中、ぼうっとしている。
重い腰をあげる	(おもいこしをあげる)	‘腰をあげる’(일어서다)+‘重い’. ‘腰が重い’는 ‘중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重い腰をあげる’는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일어서다’
ごほうび	(ご褒美)	포상, 칭찬의 의미로 주는 금품이나 상
真		참, 진짜, ‘바른’, ‘완전, 정확’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강조
真上	(まうえ)	바로 위
真ただ中	(まっただなか)	한창~(할)때
真心	(まごころ)	진심
真四角	(ましかく)	정사각
真っ青	(まっさお)	새파란
真ん丸い	(まんまるい)	완전 둥글다
ために		~을/를 위하여. 1. 목적: 息子を留学させるために大金を使った。선행절. 후행절 주어 같다, ~때문에. 2. 원인 息子が留学するために大金を使った。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 다르다.
~になる		~이/가 되다 おなかが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會議は10時からになりました。酒を飲んで顔が赤くなりました。
のんびり		유유히, 한가로이 느긋이 そろそろ引退して、田舎でのんびりと過ごしたい。彼はのんびりした性格だから、何事も急がない。
<b>12. 山登り</b>		
(キムと山本がカフェで趣味について話をする)		
山	キム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김 상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키	私はトレッキングです。	저는 트레킹입니다.
山	トレッキング? あ~山登りですか。日本の山も登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트레킹? 아~ 등산이요? 일본 산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키	はい。今まで、富士山に3回登りました。	네. 지금까지 후지산을 세 번 올랐어요.
山	3回もですか。それは大変だったでしょう。富士山に登るなんて、想像しただけで気が遠くなりますよ。	세 번이나요? 그것 참 힘들었겠네요. 후지산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키	空気が薄くて苦しくなる人もいるのに、キムさんは大したものですよ。	공기가 얇아서 괴로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김 상은 대단하시네요
키	頂上近くに山小屋があって、そこでカレーを食べたりしながらしっかり休んだので、大丈夫でしたよ。	정상 근처에 산장이 있어서 거기서 카레를 먹거나 하면서 푹 쉬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山	山の上で食べるカレーは、最高でしょうね。	산 위에서 먹는 카레는, 최고겠네요.
키	そうですね。まあ、それよりも夜の登山は格別でしたよ。まわりは全て星空が広がっているので、	맞아요. 음, 그보다 야간 등산은 각별했어요. 주위는 모두 별만 보이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b>まるで</b> 自分も星になって <b>空に浮かんでいる</b> ような気持ちになるんです。		마치 나 자신도 별이 되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山	わあ~それはすてきですね。あ、じゃあ <b>ご来光</b> も見たんですか。		와~ 그거 멋지네요. 아, 그럼 해돋이도 봤어요?
キ	もちろんですよ。9合目の山小屋から見たんですが、 <b>言葉にならない感動</b> でした。		물론이에요. 9부 능선 산장에서 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山	ご来光を見たら、いい事がたくさんあるそうですね。		해돋이를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b>想像する</b>	(そうぞうする)	상상하다
	<b>気が遠くなる</b>	(きがとおくなる)	정신이 아찔해지다, 정신 잃다
	<b>空気</b>	(くうき)	공기
	<b>薄い</b>	うすい	얇은
	<b>苦しい</b>	(くるしい)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b>大した</b>	(たいした)	대단한, 굉장한 たいへんな, 非常な, 大した (「それほどの」) ことはない。뒤에 부정표현 오면 별거 아니다라는 뜻으로.
	<b>頂上</b>	(ちょうじょう)	정상
	<b>山小屋</b>	(やまごや)	산장, 산막
	<b>星空</b>	(ほしぞら)	별이 총총한 밤하늘
	<b>浮(か)ぶ</b>	(うかぶ)	뜨다
	<b>ご来光</b>	(ごらいこう)	높은산에서 보는 장엄한 해돋이
	<b>~合目</b>	(ごうめ)	~부 능선
	<b>感動</b>	(かんどう)	감동
	<b>も</b>		~이나(数量名詞+) 雨はもう3日も降っている。
	(まるで)~ようだ		(마치) ~인 것 같다, ~와/과 같다. 1. 비유. 「まるで」, 「ちょうど」 와 같이 彼女の心は氷のように冷たい。男は狂ったように走り続けた。2. 추측. お腹がすいたようですね。先生はお酒が好きなようです。
	~でしょう		~이지요. 「だろう」의 정중한 표현. 1. 추측(상승조) あしたはいい天気でしょう。2. 확인 このお菓子、おいしいでしょう？ 3. 추측(하강조) 相手がメールを見たか確認できる機能があるでしょう。4. 「~でしょうか」 의문. 걱정 田中さんもラーメンが好きでしょうか。
	<b>しっかり</b>		확실히, 꼭, 단단히, 똑똑히
	<b>13. 浮世絵</b>		
	(ミレと夫のキムが居間で話している)		
キ	日本のお札 <b>ってさ</b> 、数字が漢数字より小さくて <b>見にくい</b> んだよね。		일본의 지폐는 말이야, 숫자가 한자 숫자보다 작아서 보기 힘들어
ミ	<b>そう言われてみたら</b> 、漢字ができない人は <b>パツと見た</b> 感じではわかりにくいね。でも、2024年から <b>新しいお札</b> に変わるのよ。		듣고 보니, 한자를 못하는 사람은 언뜻 본 느낌으로는 알아보기 힘들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로운 지폐로 바뀌어.
キ	え、そうなんだ。		어, 그렇구나

ミ	(携帯で写真を見せながら)ほら、これ見て。今より数字が大きいでしょう。		자, 이것 봐. 지금보다 숫자가 크지?
キ	本当だ。こっちの方が俺たち外国人には見やすいよね。あ、これ俺の好きな浮世絵(うきよえ)だ。葛飾北斎(かつしかほくさい)の富岳(ふがく)三十六景の一つだね。		정말이네. 이쪽이 우리 외국인에게는 알아보기 쉽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우키요에다.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부악 36경 중 하나야.
ミ	そうよ、浮世絵っていえばこれ！ってくらい有名な神奈川沖浪裏(おきなみうら)！千円札に使われたんだよね。		맞아, 우키요에라고 하면 이거!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가나가와오키 나미우라! 천 엔짜리 지폐에도 사용됐지.
キ	これは波の絵って言われてるように、波の迫力がすごいよね。		이것은 파도 그림이라는 말처럼 파도의 박력이 굉장해.
ミ	浮世絵って、ヨーロッパの画家のゴッホとかモネにも影響を与えたっていうから本当にすごいよね。		우키요에는 유럽 화가인 고흐나 모네에게도 영향을 미쳤단니까 정말 굉장하지.
キ	そうそう。ジャポニスムね。浮世絵が火付け役になったって言われてるよね。		그래그래, 자포니즘 말이지. 우키요에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들 하지?
	昔から芸術によって日本と世界がつながっていたんだよね。		옛날부터 예술을 통해 일본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ミ	めずらしくまともな事言うわね。		희한하게 제대로 된 말을 하네?
キ	めずらしくって何だよ。失礼だな～。		희한이라니! 실례야~.
	夫	おっと	남편
	ってさ		라고 말이야
	そう言われてみたら		그 말을 듣고 보니
	そうなんだ		그렇군
	ほら		거봐, 자
	浮世絵	(うきよえ)	에도시대 풍속화.
	居間	(いま)	거실, 거처방
	お札	(おさつ)	지폐
	迫力	(はくりょく)	박력
	画家	(がか)	화가
	影響	(えいきょう)	영향
	与える	(あたえる)	주다, 부여하다
	火付け役	(ひつけやく)	일, 사건, 소동 등의 계기를 만드는 역할, 또는 사람
	芸術	(げいじゅつ)	예술
	つながる	繋がる	이어지다, 연결되다, 관련되다
	まとも	眞面	1.건실함, 착실함, まじめまともに生きる。これは、まともな金だ。2. 정면 真正面(まじょうめん) 逆風をまともに受ける。まともに相手の顔を見る。
	といえば		~(으)로 말하자면, 이라고 하면 酒といえばやっぱりビールが一番だ。
	くらい		정도, 만큼, くらい(회화체). 정도가 심할때는ほど. 死ぬ {ほど(○)/くらい(×)} 疲れた。
	~にくい		~(하)기 어렵다. あの人(사람)は顔が怖いので、話しかけにくいです。
	~パッと		1) 확, 순간적으로 ぱっと 電灯がつく。2) 짹, 사방에 うわさがパッと 広まる。



	<b>14. 夏祭り</b>		
	(夏祭り会場に来たミレとハル)		
ミ	あ～間に合った！思ったより時間かかっちゃったね。		아~ 제시간에 도착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
ハ	ママが浴衣着るのが遅かったんでしょ。		엄마가 유카타 입는 게 느렸던 거겠지.
ミ	あはは。ごめんごめ～ん。あっ、ハルの好きなお面よ！		아하하. 미안미안~. 앗, 하루가 좋아하는 가면이다!
ハ	わ～い！いろんなキャラクターのお面がある！どれにしようか迷っちゃう。		와! 여러 캐릭터의 가면이 있다! 어떤 걸로 할까 망설여져
ミ	買ってでもいいけど、今日のおこづかいは1,000円までよ。		사도 되지만, 오늘 용돈은 1000엔까지야.
ハ	え～じゃあ、お面買ったら終わりじゃん。や～めた！あっ金魚すくいだ！あれにする。		에이~ 그럼 가면 사면 끝이잖아. 관둘래! 앗 금붕어 건지기다! 저걸로 할래.
ミ	いいけど、金魚はすくったら、ちゃんと育てないといけないのよ。責任もてる？		괜찮지만, 금붕어는 건지면, 제대로 키워야 해. 책임질 수 있어?
ミ	んー…じゃ、あのヨーヨー釣りにする。		음... 그럼, 저 요요 낚시로 할래.
ハ	わかった。とりあえず何か食べるもの買ってからにしよう！りんご飴がいい？かき氷もいいわね。		알았어. 일단 뭐 먹을 거 사고 나서 하자! 사과 사탕이 좋아? 빙수도 좋네.
	(ヨーヨー釣りをしてから)		
ミ	うわ～ヨーヨー、たくさん釣れたね。こんなに釣ってどうするの。		와~ 요요 많이 낚았네. 이렇게 낚아서 어떻게 할거야?
ハ	パパのお土産にするの。		아빠 선물을 할거야.
ミ	(花火の音が聞こえる) あっ花火だ！わ～きれいねえ。		앗 불꽃놀이! 와 이쁘다
男	た～まや～～！！		다~마야~~!
女	か～ぎや～～！！		가~기야~~!
ハ	ママ、たまや、かぎやってなに。		엄마, '다마야, 가기야'가 뭐야?
ミ	昔、たま屋とかぎ屋という花火師が打ち上げた花火の中で、よかった方の屋号を花火に向かってさけぶ習慣があったの。それが今でも残ってるのよ。		옛날, '다마야'와 '가기야'라는 불꽃 장인이 쏘아올린 불꽃 중에서, 더 좋았던 쪽의 상호를 불꽃을 향해 외치는 습관이 있었어.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거야.
ハ	へ～じゃあ私もやってみる。た～まや～～～～！！！！		아~ 그럼 나도 해볼래. 다~마야~~~!!
	<b>迷っちゃう</b>	まよっちゃう	망설이다
	<b>かっちゃったね</b>	掛かる	걸려버렸네
	<b>会場</b>	(かいじょう)	(행사, 회의 등이 열리는)장소, 회장
	<b>お面</b>	(おめん)	가면, 탈
	<b>おこづかい</b>		용돈
	<b>金魚</b>	(きんぎょ)	금붕어
	<b>すくう</b>		건져내다, 뜨다, 떠내다
	<b>責任</b>	(せきにん)	책임
	<b>持てる</b>	もてる	가지다

とりあえず	取り敢えず	1. 우선, 먼저 <b>まず</b> はじめにとりあえずお返事まで。2. 일단 <b>ともかく</b> 、ひと <b>まず</b> とりあえず行ってみよう。
ひとまず	一先ず	일단, 우선, 하여튼, 一応 <b>あやしい</b> 人物がいたので、ひと <b>まず</b> その場所から離れました。
りんご飴	(りんごあめ)	사과사탕.
かき氷	(かきごおり)	빙수
釣れる	(つれる)	['釣る'의 가능형] (물고기가)잡히다, 낚이다
打ち上げる	(うちあげる)	쏘아올리다, 쳐올리다
屋号	(やごう)	상호, 상점명
さけぶ	叫ぶ	외치다, 부르짖다
ちゃんと		반듯없이, 정확히, 착실하게 <b>きちんと</b>
～ないといけない		~(하)지않으면안된다, ~(해)야한다 映画は <b>まず</b> おもしろくないといけません。「~なければならぬ」:규범, 당위, 早く行かないとならない。(×) 早く行かなければならぬ。(○)
間に合う	(まにあう)	(정해진시간, 기한 등을) 지키다, 맞추다
すくったら		건지면
「たら」		1. 조건절+의지. 金魚はすくったら、ちゃんと育てないといけないのよ。2. 이미 성립된 사실적 조건 = 窓を開けたら、冷たい風が入ってきた。= 「と」 開けると
「と」		반복적, 항상적 의존관계. 후행절에 의지. 명령, 희망, 의뢰 窓を開けると、冷たい風が入ってきた。
「ば」		항상 의존적. 가정조건 あしたもし雨が {○ふれば/×ふると} どうしますか。예외. 조건절. 주절 주체가 다른 경우. 分からないことが {○あれば 父が許して {○くれれば /○くれたら /○あったら}、いつでも聞いてください。} 彼女と結婚するつもりです。
<b>15. おもてなし</b>		
(ミレとキムが伊藤先生の家へ招待される)		
幸	ミレさん、いらっしゃい!(スリッパを出しながら)どうぞ、 <b>あがって</b> 。	미래 씨,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와요.
ミ	先生、奥様、 <b>ご無沙汰</b> してます。 <b>おじゃま</b> します。	선생님,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伊	ミレさん、日本語が上手になったね。	미래 씨, 일본어가 많이 늘었네.
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生のおかげです。あ、うちの主人です。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 제 남편입니다.
キ	ミレからよく伺ってました。キムと申します。(手土産を渡しながら)あ、これ、ご家族の皆さんでどうぞ。	미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가족분들이랑 드세요.
伊	手土産なんていいのに。すみませんね。今日はミレさんがくるからって、妻が腕をふるって夕飯を準備したからたくさん食べて行って。	선물이라니 괜찮은데. 고마워요. 오늘 미래 씨가 온다고 해서 아내가 실력 발휘를 해서 저녁 차려 냈으니까 많이 먹고 가요.
(食卓で)		
幸	<b>お口に合う</b> かどうかわからないけど…どうぞ <b>召し上がり</b> て。	입맛에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서 드세요.

ミ	わあ、日本の家庭料理が食べられるなんて感激です！		와, 일본 가정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감격입니다!
幸	(おしぼりを広げて渡しながら) おしぼりどうぞ。		물수건 받아요.
キ	温かくて気持ちいい！ おしぼりをいただくなんて、お店に来たような気分です。		따뜻해서 기분 좋네요! 물수건을 받다니, 가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ミ	こういうところに、日本の「おもてなし」を感じますね。		이런 데서, 일본의 '접대'를 느끼네요.
幸	そんな、おおげさよ。私たちは、とにかくミレさんたちが来てくれたことがうれしくて。		에이, 과찬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미래 씨가와준 것이 기뻐서.
伊	今日は実家に帰ったと思って、たくさん食べてゆっくりしてね。		오늘은 본가에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고 편하게 있어요.
ミ	はい！それじゃ、お言葉に甘えて…。		네! 그럼, 말씀대로...
キ	いただきますーす！		잘 먹겠습니다.
	<b>おもてなし</b>	<b>お持て成し</b>	[접두사'お'+ 'もてなす'의ます형] 대우, 접대
	招待する	<b>(しょうたいする)</b>	초대하다
	奥様	<b>(おくさま)</b>	부인[타인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로 '奥さん'보다 경의가 높다.]
	<b>ご無沙汰する</b>	<b>(ごぶさたする)</b>	격조(隔阻)하다 ['無沙汰'의 공손한 표현]
	おじゃまする	お邪魔する	실례하다 ['お+邪魔する(방해하다)']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쓰는 겸양어]
	<b>伺う</b>	(うかがう)	['聞く(듣다)', '訪れる(방문하다)']의 겸양어(謙讓語)
	手土産	(てみやげ)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선물
	<b>腕</b>	<b>(うで)</b>	숨씨, 팔.
	<b>ふるう</b>	<b>振るう</b>	발휘하다, 휘두르다 cf. 腕を振るう 숨씨를 발휘하다
	食卓	<b>しょくたく</b>	식탁
	<b>召し上がる</b>	(めしあがる)	드시다, 접수시다. ['食う(먹다)', '飲む(마시다)']의 존경어(尊敬語)]
	<b>おおげさ</b>	大げさ・大袈裟	과장됨, 야단스러움
	<b>実家</b>	(じっか)	부모님댁, 생가, 친정
	<b>お言葉に甘える</b>	(おことばにあまえる)	상대의 호의에 따르다
	～て		(命令): ~해早く起きて。早く起きて。
	なんて		1) 예시(⇒ 명사에 접속): ~같은 것, ~따위 テレビなんて見ないで、手伝いなさい。 2) 놀람, 경시(⇒ 술어에 접속): ~(이)라니, ~하다니 あんな人が警察だなんて、信じがたい。
	<b>手土産なんていいのに</b>		선물이라니 괜찮은데. 뭘 이런걸 다 [手土産+なんて+いい+のに]
	<b>口に合う</b>		입맛에 맞다
	～ようだ		~(인) 것 같다 <비유> 今日は真夏のような暑さだ。